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성격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Teachers

박재현, 하창순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Jae-Hyun Park(fancy641@naver.com), Chang-Soon Ha(changh@konyang.ac.kr)

요약

본 연구는 교사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성격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상담 개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사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신경증과 소진은 정적상관을 외향성, 성실성, 정서지능은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신경증은 정서지능과 부적, 소진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은 정서지능과 정적, 소진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친화성은 정서지능과 소진과는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은 부분매개역할을 하였으나 개방성과 친화성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의 상담 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 중심어 : | 직무스트레스 | 소진 | 성격 | 정서지능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with job stress of teachers and burnout to prevent the burnout of teachers and provide primary data for counseling intervention. Thu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88 teachers and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verifi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shown below. First, the job stress, neuroticism and burnouts were positively related while the extroversion, conscientiousness, emotional intelligence were negatively related. And the neuroticism was negatively relat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 but positively related with burnout. And the extroversion, openness, conscientiousness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emotional intelligence but negative relationship with burnout. However, the agreeableness did not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Seco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with job stress and burnout. Third, the neuroticism, extro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with job stress and burnout, but the openness and agreeableness were found not to mediate.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bility of counselling and further research was discussed in this study.

■ keyword : | Job Stress | Burnout | Personality | Emotional Intelligence |

I. 서론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학생 희망직업 1위가 교사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대학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 교직은 안정적인 임금, 정년과 연금의 보장,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학생들의 선호 직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직업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부터 2년간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의 만족도 순위는 90위에 그쳤으며, 과중한 업무와 획일적인 평가 위주의 교육, 교권 추락이라는 현실 속에서 교사는 교육과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1].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들은 교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겪게 하고, 결국 소진(burnout)에 이르게 하고 있다[2][3].

소진은 개인적인 욕구를 도외시키고 지나치게 일에 집중하여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 현상을 의미하며[4], Faber[5]은 소진을 지나친 직무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조정되지 않은 직무스트레스의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스트레스의 최종 상태를 소진이라고 제안한 Betoret[6]의 관점과 일치하며, 직무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김혜경[7]의 견해와 일치한다.

교사는 직무상 끊임없이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여야 하는데, 소진된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이나 학생을 믿지 않으며, 쉽게 인내심을 상실하게 되어[8], 교육력의 저하와 교직에 대한 불만족, 우울증을 가지기 쉽고[5][9][10], 나아가 교사가 수행해야 할 전문적 역량을 감소시켜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중요한 연구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으나[12-14], 같은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개인이 지각하는 소진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15]. 즉,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사이에서 개인적 변인이 주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 중 정서지능과

성격을 중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살펴보고, 차이를 판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정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16]. 교사 소진에 덜 취약한 교사들은 정서지능이 높고, 건강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부적 정서에 잘 대처할 것이고, 적응적인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원에 반응하기 위하여 정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17][18] 정서지능이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아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Freudenberger[19]은 소진이 개인의 성격과 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소진에 있어서 성격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Bakker[20]에 따르면 연구 설계에서 통합적인 성격이론이 아닌 특정한 성격변인만을 연구에 포함시킨다면 연구자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인해 성격과 심리적 소진과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감정, 생각, 행동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성격 차이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격 5요인[21]과 같은 통합적 성격모델과 소진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요인 성격모델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이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인은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22]. 이 도구는 직장에서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예언변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2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소진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성격이 어떤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다중매개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매개변인에 주목한 이유는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심리내적인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지능, 성격, 소진과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지능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격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II. 이론적 배경

직무스트레스는 사람, 사물, 사건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노, 의기소침, 긴장, 불안, 욕구좌절, 갈등 등의 불유쾌한 정서와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반응증후군(response syndrome)이다[24].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교사 업무의 질적 및 양적 수행력의 저하, 활력 및 책임감의 상실, 조직 및 동료에 대한 무관심, 이직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25]. 특히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되면 학생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26]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진은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정신적·신체적 자원의 고갈과 피로를 느끼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심리적 에너지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신, 대인관계, 직무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행동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27]. 이러한 소진은 일시적이며 급작스런 사건에 의한 결과가 아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나 조직에 서서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련의 연속적 현상이다[28].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소진이 관계가 있으며[29],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소진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13][30-33].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사이의 개인적 변인 중 하나인 성격은 개개인을 구별하는 생득적이며 습관적인 것으로서 행동, 사고, 감정 등을 결정해주는 내적인 조직체로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34].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은 5요인 성격모델로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이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요인이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하였다[22]. 이러한 5가지 요인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며,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성된다.

성격은 소진을 유발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는 가장 유력한 변인 중 하나이다[35][36].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격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특징들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신경증은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35-38], 외향성은 소진과 부적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20][35][37][38]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20]. 개방성 또한 소진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39]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40][41]이 존재했다. 성실성은 근면하고 성취지향적이므로 소진과 부적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41][42]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했다[35]. 마지막으로 친화성은 소진과 부적상관이 있다는 연구와[38][39] 상관이 없다는 연구[41]가 존재했다. 즉, 소진과 신경증은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나 그 외의 특성들은 연구대상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서지능은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에 접근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감정에 접근하거나 정서를 발생할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지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다[4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은 소진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진다고 한다[18][44-46].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소진을 덜 경험한다는 연구들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47]. 한편, 정서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48].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성격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연구모형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직접영향을 미침과 더불어 정서지능을 통해 또는 성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서지능과 성격(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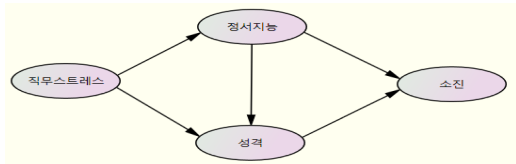


그림 1. 정서지능과 성격의 검증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초·중등 교사들이다.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취합되지 않거나 무응답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62부를 제외한 48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분석 결과 성비는 남성 179명(36.7%), 여성 307명(62.9%), 무응답 2명(0.4%)으로 나타났다. 재직학교는 초등 168명(34.4%), 중등 16명(16.2%), 고등 239명(49.0%), 무응답 2명(0.4%)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3.1 직무스트레스 척도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Kyriacou와 Sutcliffe[49]의 교사 직무 스트레스 척도를 김정휘[5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9개의 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휘[5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3.2 성격 5요인 척도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51]의

IPIP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5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한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였다. 정순우[5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신경증 .82, 외향성 .83, 개방성 .78, 친화성 .80, 성실성 .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 .88, 외향성 .84, 개방성 .71, 친화성 .83, 성실성 .82로 나타났다.

3.3 정서지능 척도

교사의 정서지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Wong과 Law[54]이 개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임전옥[55]이 타당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전옥[5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3.4 소진 척도

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slach와 Jackson[56]이 개발하고 Schwab과 Iwanicki[57]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인타당도를 확인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김정휘[58]와 강학구[59]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소진경험에 대한 빈도만을 사용하여 측정된 선행연구[59-60]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빈도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Maslach 등[56]의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정서지능, 성격, 소진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직무스트레스, 정서지능, 성격, 소진을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만들어 하나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과 자료의 정상성(normality)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 하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Anderson과 Gerbing[61]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에 의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잠재변인을 직접 측정하는 관측변인들이 정규분포를 가정해야 한다[62].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관측변인 문항꾸러미를 만들었

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과 다중공선성 및 등분산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자료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변인들의 정상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를 보면 왜도는 $-.36\sim.22$ 으로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는 $-.29\sim.57$ 으로 4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Hong, Malik, Mary, & Lee[63]가 제안한 기본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직무스트레스와 신경증과 소진은 정적상관을 외향성, 성실성, 정서지능은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신경증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지능과는 부적상관을 소진과는 정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은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지능과는 정적상관이 소진과는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은 친화성, 성실성, 정서지능과는 정적상관이, 소진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성실성은 정서지능과는 정적상관이 소진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소진과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직무스트레스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정서지능	소진
직무스트레스	-							
신경증	.27**	-						
외향성	-.15**	-.17**	-					
개방성	-.05	-.06	.39**	-				
친화성	-.07	-.20**	.48**	.41**	-			
성실성	-.16**	-.17**	.25**	.35**	.38	-		
정서지능	-.11*	-.33**	.34**	.40**	.47	.47**	-	
소진	.46**	.45**	-.34**	-.22**	-.39	-.40**	-.43**	-
M	2.84	2.84	3.05	3.29	3.48	3.55	3.66	2.51
SD	.49	.61	.58	.44	.52	.56	.50	.52
왜도	-.17	.22	.16	-.10	-.04	.00	-.36	-.01
첨도	.38	.28	.03	.30	.26	-.02	.57	-.29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적합

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TLI, CFI, RMSEA를 확인하게 되며, 배병렬[64]과 Steiger[65]은 TLI와 CFI는 .90이상 일 경우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10이하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TLI, CFI의 경우 .90이상, RMSEA는 .10이하로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리고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적재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배병렬[64]에 의하

면 C.R.의 값이 ±2.58 이상일 경우 1% 수준에서 유의하며, 개념신뢰도가 .70이상일 경우 내적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분산추출(AVE)값이 .50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유형	χ^2	df	TLI	CFI	RESEA
측정모형	모형1(신경증)	196.79***	48	.950	.964	.080
	모형2(외향성)	183.85***	48	.952	.965	.076
	모형3(개방성)	161.78***	48	.956	.968	.070
	모형4(친화성)	225.36***	48	.938	.955	.087
	모형5(성실성)	239.68***	48	.932	.951	.091

*** $p < .001$

이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1의 비표준화 계수 C.R. 값이 모두 ±2.58이상으로 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는 .870~.977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인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691~.935으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잠재변인의 상관계수(ρ^2)가 각 관계된 AVE값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모형2의 경우도 비표준화 계수 C.R. 값이 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는 .916~.977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인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784~.935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잠재변인의 상관계수(ρ^2)가 각 관계된 AVE값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모형3의 경우, 비표준화 계수 C.R. 값이 모두 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는 .882~.977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인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717~.935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잠재변인의 상관계수(ρ^2)가 각 관계된 AVE값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모형4의 경우 비표준화 계수 C.R. 값이 모두 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는 .929~.977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인의 평균분산추출

(AVE) 값은 .814~.935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잠재변인의 상관계수(ρ^2)가 각 관계된 AVE값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모형5의 경우 비표준화 계수 C.R. 값이 모두 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는 .907~.977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인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은 .766~.935로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잠재변인의 상관계수(ρ^2)가 각 관계된 AVE값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3. 최종구조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성격 유형에 따른 5개의 모형 중, 모형3(개방성)에서 직무스트레스가 개방성에, 개방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4(친화성)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친화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최종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1의 직접효과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지능(C.R=-2.218)과 정서지능은 신경증(C.R=-6.777), 소진(C.R=-5.952)와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직무스트레스는 신경증(C.R=5.951), 소진(C.R=9.531)과 정적인 영향을, 신경증은 소진(C.R=6.154)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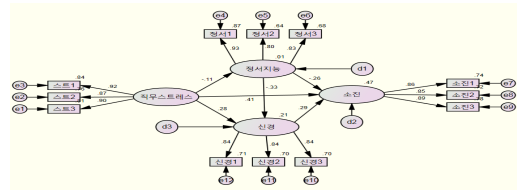


그림 2. 모형1 최종 구조모형

표 3.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표

유형	χ^2	df	TLI	CFI	RESEA	
모형1(신경증)	196.79***	48	.950	.964	.080	
모형2(외향성)	183.85***	48	.952	.965	.076	
측정모형	모형3(개방성)	163.71***	50	.958	.968	.068
	모형4(친화성)	225.51***	49	.940	.955	.086
	모형5(성실성)	239.68***	48	.932	.951	.091

*** $p < .001$

표 4. 모형1 잠재변인 간 직·간접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무스트레스 → 정서지능	-.119	-	-.119
→ 외향성	-.133*	-.047*	-.180**
→ 소진	.596***	.077**	.673***
정서지능 → 외향성	.397***	-	.397***
→ 소진	-.306***	-.090***	-.396***
외향성 → 소진	-.227***	-	-.227***

* $p < .05$, ** $p < .01$, *** $p < .001$

모형2의 직접효과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지능(C.R=-2.168), 외향성(C.R=-2.482)과 정서지능은 소진(C.R=-5.905), 외향성은 소진(C.R=-4.198)과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지능은 외향

성(C.R=7.817)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C.R=10.910)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구조모형은 [그림 3]와 같다.

표 5. 모형2 잠재변인 간 직·간접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무스트레스 → 정서지능	-.119	-	-.119
→ 외향성	-.133*	-.047*	-.180**
→ 소진	.596***	.077**	.673***
정서지능 → 외향성	.397***	-	.397***
→ 소진	-.306***	-.090***	-.396***
외향성 → 소진	-.227***	-	-.22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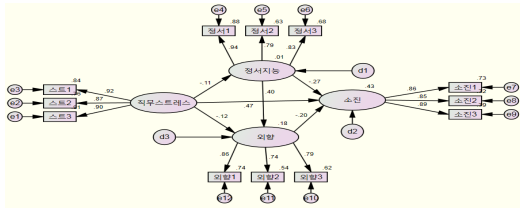


그림 3. 모형2 최종 구조모형

모형3의 직접효과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지능(C.R=-2.188), 정서지능은 소진(C.R=-8.279)와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지능은 개방성(C.R=8.570)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C.R=11.262)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구조모형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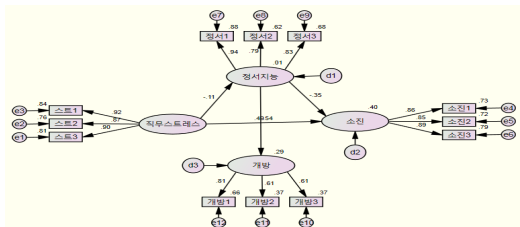


그림 4. 모형3 최종 구조모형

표 6. 모형3 잠재변인 간 직·간접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무스트레스 → 정서지능	-.120*	-	-.120*
직무스트레스 → 소진	.625***	.048*	.673**
정서지능 → 개방성	.354***	-	.354***
정서지능 → 소진	-.398***	-	-.398***

* $p < .05$, ** $p < .01$, *** $p < .001$

표 7. 모형4 잠재변인 간 직·간접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무스트레스 → 정서지능	-.122*	-	-.122*
직무스트레스 → 소진	.612***	.050*	.662***
정서지능 → 친화성	.457***	-	.457***
정서지능 → 소진	-.274***	-.135***	-.409***
친화성 → 소진	-.294***	-	-.294***

* $p < .05$, ** $p < .01$, *** $p < .001$

모형4의 직접효과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지능(C.R=-2.255), 정서지능은 소진(C.R=-4.901)와 친화성은 소진(C.R=-4.604)과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지능은 친화성(C.R=9.571)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C.R=11.386)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구조모형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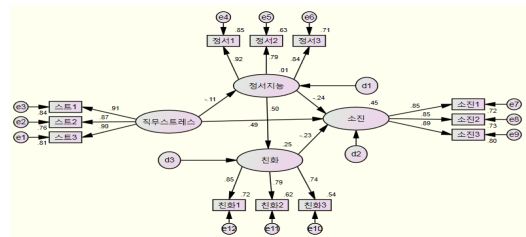


그림 5. 모형4 최종 구조모형

표 8. 모형5 잠재변인 간 직·간접 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무스트레스	→ 정서지능	-.121*	-	-.121*
	→ 성실성	-.112*	-.056*	-.168*
	→ 소진	.600***	.070*	.670***
정서지능	→ 성실성	.461***	-	.461***
	→ 소진	-.315***	-.088*	-.403***
성실성	→ 소진	-.191*	-	-.191*

* $p < .05$, ** $p < .01$, *** $p < .001$

모형5의 직접효과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 수준 5%에서 유의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정서지능(C.R=-2.216), 성실성(C.R=-2.364)와 정서지능은 소진(C.R=-5.531)과 성실성은 소진(C.R=-2.91)과 부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지능은 성실성(C.R=9.467)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C.R=10.914)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구조모형은 [그림 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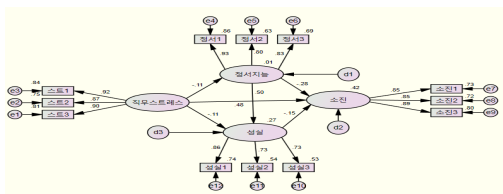


그림 6. 모형5 최종 구조모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지능과 성격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이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소진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13][29-33]. 신경증은 소진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비록 대상이

다르나 상담자의 신경증적 성격이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5][37][38]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은 소진과 부적이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0][35][37-39]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친화성은 소진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화성과 소진이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결과[38][39]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은 소진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나 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진다고 하는 선행연구[44][45]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교사일수록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부정적 정서들을 빈번히 경험하는 신경증적 성격을 가질수록 학교 환경에서 높은 소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동료 교사와 상호작용을 원하는 외향형, 개방성, 책임이 강하고 안정적인 성실성 성격을 가지거나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높은 교사는 낮은 소진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사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정서지능이 매개되었을 때 소진을 낮추는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교사이나 정서지능이 높을 경우 정서지능이 낮은 교사보다 소진을 덜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17][18][66-68]. 본 연구결과는 매개효과인 정서지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

을 시사한다. 즉, 선생님이 되기 원하는 예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교사들에게 상담개입을 하여 개인의 정서지능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성격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증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심리적 소진과 신경증이 강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35][69]. 달리 말하면,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신경증의 성향을 가진 교사는 충동적일 뿐 아니라 쉽게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70] 이는 소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소진의 줄이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는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이므로 교사의 신경증을 다룰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외향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며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은 직무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며 소진을 낮춘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나[35]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연구[70]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집 대상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외향성 성격의 교사는 주로 만족이나 보상 지향적이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소진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 셋째, 개방성과 친화성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성, 친화성이 소진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35][40]. 다섯째, 성실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며 억제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실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신중하고 꼼꼼하여 자신의 일을 바랍직하게 수행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성취와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게 되어[70] 소진을 적게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높은 성실성이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70]. 따라서 교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 성실성을 늘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교사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개방성과 친화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그 외의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진을 경험하는 교사에게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에 대한 상담적 개입과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교사대상으로 소진에 영향을 주는 정서지능, 성격 등 중요한 변인을 확인하여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적응과 깊이 관련이 있는 특성을 이해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서지능과 성격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교사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재직 학교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인한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차이점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질문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반응자에 따른 자신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고의적으로 왜곡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개인면담, 동료나 가족들의 평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고은지,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2] 구본용, 김영미, “중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7호, pp.275-306, 2014.
- [3] 김성기,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 분석을 통해 본 교단 안정화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2012.
- [4] H. J. Freudenberger, "The psychologist in a free clinic setting: An alternative model in health car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Vol.10, No.1, pp.52-61, 1973.
- [5] B. A. Faber, *교육의 위기: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 조연순, 정혜영, 김정희 공역, 서울: 박학사, 2006.
- [6] F. D. Betoret, "Self efficacy, school resortces, job stressors and burnout among Spanish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Educational Psychology*, Vol.29, No.1, pp.45-68, 2009.
- [7] 김혜경, *직무환경,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사 효능감의 매개효과*,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8] 김정희, 김태욱,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탈진: 교육의 위기*, 서울: 박학사, 2006.
- [9] M. S. Corey and G. Corey, *Becoming a helper*.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2011.
- [10] J. Mearns and J. E. Cain,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and their burnout and distress: Roles of coping and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xiety, Stress and Coping*, Vol.16, pp.71-82, 2003.
- [11] 박화자,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와 대처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2] 유성경, 박성호, "상담환경의 위험요소,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2호, pp.389-400, 2002.
- [13] 이현아, 이기학,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1호, pp.83-102, 2009.
- [14] 최태욱,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소진, 직무환경의 위험요소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성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7.
- [15] 임종철, "교사의 소진경험 연구에 관한 일고," *부산교육대학논문집*, 제27권, 제1호, pp.153-171, 1991.
- [16] P. Salovey and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No.3, pp.185-211, 1990.
- [17] L. S. Greenberg,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 [18] 조현주, 박경애, "교사의 정서지능과 자기 효능감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pp.691-702, 2007.
- [19] H. J. Freudenberger,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3, No.1, pp.1540-4560, 1974.
- [20] A. B. Bakker, K. I. Van Der Zee, K. A. Lewig, and M. F. Doll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burnout: A study among volunteer counselo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46, No.1, pp.31-502, 2006.
- [21] R. R. McCrae and O. P. Joh,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Vol.60, pp.175-215, 1992.
- [22] A. B. Buss,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Vol.44, pp.1378-1388, 1989.
- [23] 유태용, "성격의 5요인과 학업수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98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pp.263-276, 1998.
- [24] B. A. Farber, *Crisis in education: Stress and burnout in the American teacher*, San Francisco, CA, US: Jossey-Bass, 1991.
- [25] 김영해, *초등학교 교사의 삶의 의미, 일의 의미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교수몰입과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26] 신혜영,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2004.
- [27] 정연홍, 교사의 소진 측정도구 개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28] 김영중, 외식산업 종사원의 직무요구가 소진, 직무만족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29] W. B. Schaufeli, C. Maslach, and T. Marek,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 in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Taylor and Francis, 1993.
- [30] 윤혜미, 노필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경력 몰입, 소진과 이직의도 간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제43권, pp.157-184, 2013.
- [31] 박영란,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경험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2] 김정은,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33] 윤다혜,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이 심리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34] 정다원,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성격특성이 영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35] 이영란, 상담자의 소진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6] 박현숙, 놀이치료자의 5요인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7] 문인숙, 5요인 성격특성과 정서노동이 항공기 승무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8] 한선아, 상담자의 성격특성과 심리적소진간의 관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9] I. J. Deary, R. Watson, and R. Hogston, "A longitudinal cohort study of burnout and attr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3, No.1, pp.71-81, 2003.
- [40] R. L. Piedmont, "A longitudinal analysis of burnout in the health care setting: The role of personal dispos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61, pp.457-473, 1993.
- [41] 전영남, 초등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소진의 관계: 성격5요인의 매개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42] 박소영, 성격5요인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중등교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43] P. Salovey and D. J. Sluyter,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1997
- [44] 이진화,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만족도, 소진과의 관계," 아동교육, 제16권, 제4호, pp.199-210, 2007.
- [45] 김정은,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6]곽성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47] 조혜진, 김수연,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pp.231-247, 2011.
- [48] 조혜정,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9] C. Kyriacou and J. Sutcliffe, "Teacher stress: Prevalence, sources, and symptom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48, No.2, pp.159-167, 1978.
- [50] 김정휘, 스트레스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대광문화사, 1991.
- [51] L. R. Goldberg, "A-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 the lower-level factors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7, pp.7-28, 1999.
- [52] 유태용, 이기범, M. C. Ashton,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8권, 제3호, pp.61-75, 2004.
- [53] 정순우, *중등 교사의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54] C. Wong and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243-274, 2002.
- [55] 임전옥, *상담자의 정서지능과 상담관계 및 성과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56] C. Maslach and S.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Vol.2, pp.99-113, 1981.
- [57] R. L. Schwab and E. F. Iwanicki, "Perceived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and teacher burnout,"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Vol.8, pp.60-74, 1982.
- [58] 김정희,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 신체적 증상 또는 탈진과의 관계: A형 성격과 사회적 기술의 완충효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59] 강학구, *특수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특징과 요인간의 관계성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60] 서석림,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특수 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61] J. C. Anderson and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pp.411-423, 1988.
- [62]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레아카데미, 2012.
- [63] S. Hong, M. Malik, L. Mary, and M. K. Lee,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Vol.63, pp.636-654, 2003.
- [64] 배병렬, *Amos21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2014.
- [65] J. H. Steiger, "Reward Structur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version and Sales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1, No.6, pp.619-627, 1996.
- [66] 이진화,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 방식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67] 문영주, 좌현숙,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제38권, pp.353-379, 2008.
- [68] 김정은,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69] F. J. Cano-Gracia, E. M. Padilla-Muioz, and M. N. Carrasco-Ortiz, "Personality and contextual variables in teacher burnou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8, No.4, pp.929-940, 2005.
- [70] 권안나, *요양보호사의 5요인 성격특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저 자 소 개

박 재 현(Jae-Hyun Park)

정회원



- 2014년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석사)
- 2017년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박사수료)
- 2013년 ~ 현재 : 건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책임상담원

<관심분야> : 교정상담, 이상심리

하 창 순(Chang-Soon Ha)

정회원



- 2004년 : 단국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6년 :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 학회장
- 1998년 ~ 현재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정상담, 진로상담, 이상심리